정보자산 가치척도는 정보의 유용성에 기인

영국 기업들의 가치 자산 평가

● 찰스 오펜헤임 로보로우대학 정보과학과 ● 조안 스텐슨 로보로우대학 정보과학과 ● 리차드 M. S. 윌슨 로보로우대학 경영대학원

정보도 자산이라는 인식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기업에 있어 수치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가하는 문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기업에 있어 정보는 분명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부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기재가 필요하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편집자〉

● **찰스 오펜헤임** *로보로우 대학 정보 과학 교수. 주된 전문 관심 분야는 법과 정보 서비스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가이다. 또한 지식 관리, 정보의 가치와 그 영향 평가, 사례 연구, 국가 및 회사 정보 정책, 전자 정보 및 출판 산업, 윤리적인 문제들, 화학 정보 처리, 특허 정보 및 디지털 도서관과 인터넷과 관련된 사안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조안 스텐슨** *로보로우 대학 정보과학과 연구 회원.*

● **리차드 윌슨** *로보로우 대학 경영 및 재정 관리 교수. 회계 뿐 아니라 마케팅 연구 경력을 감안할 때 정보 자산 평가에 여러 분야를 통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출판물들을 볼때 관리 통제, 재정 통제, 마케팅 통제, 전략 통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 자본화와 회사의 물리적 재정적 자산(장부가격)사이의 차이는 "시장 대 장부 가격"이라 일컬어진다. 획득 신용(acquired goodwill)이란 취득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가격과 그것이 획득하는 개개의 확인가능한 자산들의 순가치 사이의 차이에 회계사들이 붙이는 이름이다(Higson, 1998).*

연구 배경

정보 자산의 평가는 영국 기업들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수년간 지식 관리 및 지적 자본 관리라는 개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이 기존의 벽돌과 회반죽 이외의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로보로우대학의 정보과학과와 경영대학원이 영국의 기업들이 그러한 무형의 자산들, 특히 정보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1999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프로젝트팀은 회계 및 정보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 관리 기구들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영국 기업들의 정보 자산 평가

정보 자산은 '문서화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며, 가치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로 정의된다.(Hawley Report, 1994) 모든 조직들이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어떤 데이터가 가치 있고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정보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평가 방법들이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지적 자본(정보 자산 포함)을 평가하려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례들은 나열된 기업들의 시장 자본화(주식 발행고)와 장부 가격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었다(Stewart, 1997). 그러나 나열된 기업들의 지적 자본에 대한 숫자상의 결과들은 개개의 자산들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영국 기업들의 경우 시장 자본화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러한 평가들은 시장의 기복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2000년초 첨단 기술 기업들의 가치하락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평가들이 영국 기업들 대다수를 배제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영국에서, 나열된 기업들은 1천2백만여의 영국 기업들의 극소수(불과 0.25%)만을 포함시키고 있다(Rosewall, 1997). 그러므로 영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평가법이 필요하다.

평가 방법

가장 세밀하게 조사된 평가 방법은 영국

신용 및 무형자산회계표준이 권고한 것이었다(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0, FRS10,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97). FRS10은 1998년 12월 23일부터 영국 기업들이, 무형의 자산들(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확인이 가능하고 또 보호(보관)나 법적 권리를 통해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비기술적 자산으로 정의됨)을 "시장 가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자본화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FRS10은 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평가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들을 권고하였다.

- 판매액
- 구입했을 때 원가와 적정가 사이의 차이
- 자산의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제 시장 참조

우리는 인터뷰대상자들에게 어떤 방법이 정보 자산을 평가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우리와 인터뷰한 사람들 모두, 원칙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은 "실제 시장 참조"라는 세 번째 방법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이는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팔 때의 가치요, 아니면 살 때의 가치요?"라고 답했던 철학자 루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정보 자산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자산 시장의 발전이 정보 자산에 대한 실제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그로 인해 훌륭한 평가 도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정보 자산 평가의 걸림돌

우리의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FRS10이 정보 자산 평가에 대한 적합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여졌다. FRS10의 경우에는 기업이 무형의 자산을 인정할 때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보를 신용의 한 요소로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선택사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용의 요소들은 개별적으로는 결코 측정되지 않으므로 신용 속에 포함된 정보 자산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FRS10의 까다로운 조건하에서 정보가 무형의 자산으로서 인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 자산과 그 특징을 확인하는 데 있다. 우리는 정보 자산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 차원에서 그것들을 확인 또는 평가하는 조치들을 취해온 기업들이 극소수임을 발견하였다.

회사들은 자신들의 정보 자산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직 차원에서 그것들을 확인 또는 평가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러한 최초의 단계가 없다면 평가는 분명 불가능하다. 정보 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터뷰 대상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정보가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증거가 없다.
- 정보 가치는 계속적인 갱신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정보는 그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다.
-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의 가치는 시기가 중요하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보만이 유용하다.
- 관리자들은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전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
- 해결책에 도달하는 과정은 해결책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므로 시간을 벌어주는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논평들은 평가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문제 해결이나 시간 절감에 대한 정보 자산의 이점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식되는 문제들이 서로 모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 어떤 자산도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정보 자산에 대한 회계

회계직이 정보 자산과 같은 무형의 것들을 다루는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보 자산이 대차대조표에 유용하게 포함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1 무형의 자산들이 현재 회사의 평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차대조표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자산들이 포함된다면 사용자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재무 보고를 개선시킬 것이다.

2 고객 만족도 및 종업원 만족도와 같은 비재정적 측정기준들이 대차대조표에 더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보 자산은 이들과 함께 표시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이들 자산과 그 중요성에 대한 회사의 인식에 대한 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3 평가는 관리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비용이라기보다는 자산으로 간주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것을 활용하는데 대한 이해와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잘못된 것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비용)보다는 올바른 것을 대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정보)이 더 낫다. 다시말해, 평가 + 이해 = 활용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인터뷰 대상자들 대다수가 대차대조표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정보는 소유되지 않는다: 정보 회사들은 데이터를 풍부히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누설되거나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가치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다.(정보자산의 소유권이 대차대조표에의 포함을 방해하지 않으며, 권한이나 기타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재무보고 원리 초안, ASB, 1999)

● 정보는 특별 케이스가 아니다: 정보를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적는다면 경영이나 직원같은 다른 지원 기능들도 적어야 할 것이다(정보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 케이스이다. 경영같은 다른 지원 기능들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경영 시스템을 정보 자산처럼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은 한 말이다).

● 그저 그럴 필요가 없다. 대차대조표에 광고 경비를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광고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이는 광고가 대차대조표에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회계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가급적 정확하고 엄밀하게 재무 보고를 준비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확실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보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보 전문가들은 정보 자산을 비용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고 비용 또는 시간 절감에 주력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경우 개개의 정보 자산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거의 없음이 분명했다. 그러므로 정보 자산 평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는 정보 자산의 확인, 평가, 측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확인과 평가가 영국 회사들의 경우 아직은 실행 초기 단계에 있다. 정보 감사와 같은 몇몇 방법들에 대해 관심이 새롭게 일고 있다. 이는 오르나의 실용적 정보 정책(1999)의 제2판 발행과 TFPL의 지식 감사 개발(www.tfpl.co.uk)로 증명된다.

미래

우리는 정보 자산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IMPACT 그룹이 개발한 정보 건강 지수(Information Health Index, IHI)를 확인하였다. IHI는 조직내 정보 관리의 '우수성'에 대한 측정기준을 제공한다(Horne, 1998). 정보 '건강' 검사는 정보 '재산(wealth)' 검사로 보완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이를 자체 평가 기술을 통해 조직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확인된 또 다른 방법은 오스트리아 교수가 개발한 'VAIC(가치 추가 지적 계수)'이다(Pulic, 1999). VAIC(www.measuring-ip.at/Papers/ham99txt.htm)은 지적 자본 관리를 위한 회계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퓨릭은 지적 자본을 설명하는데 가치 창조와 운영 감시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왔다. 목표는 회사가 언제 어디서라도 가치의 창조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산으로서 정보의 평가는 아직 구상의 단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비즈니스 자원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인정되고 있긴 하나 정보 자산에 금전적 가치를 두고자 시도하고 있는 지금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시도는 수고를 쏟을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정보는 직관적으로도 중요하므로 그것에 금전적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보 자산에 대판 평가를 지지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우리는 정보에 점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출을 정당화할 필요는 더 늘어갈 것이다.

정보 및 지식 관리 시스템들에 수백만 파운드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로 인한 일정 정도의 수익이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화적인 증거나 본능적인 감각에 근거한 투자는 유지될 수 없다.

영국 회사들이 정보 자산을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평가하지 않는 한 스웨덴의 스칸디아(www.skandia.com)와 미국의 다우케미컬(www.dow.com)과 같은 회사들이 이룩해온 재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지적 자본 및 지식 관리 제안들이 정보 관리의 보다 나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대중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진척을 보아온 반면 실질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영국에서는 정보 자산의 잠재력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치 창조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보 자산 평가의 가장 중요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들이 정보와 그 이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허위반 방지로부터 그러한 특허들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사용의 창출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보 자산을 비용이 아닌 가치-창조 자원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입력과 출력의 문제가 아니며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시장에서의 기회와 실현의 문제이다. 정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보 및 회계직에 대해 가치 창조 및 가치 추가 역할을 개발하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관리자들이 이 분야들을 다루어서 21세기형 조직을 창조해내야 할 때이다.